

집집마다에 사회주의바다항기 넘친다

얼마전 인민군대 수산부대에서 잡은 물고기가 평양시민들에게 공급되었다. 송화거리를 비롯한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시의 곳곳에 자리잡은 봉사망들에서 물고기를 한 가득 받아안은 시민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리고 장군님의 그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험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곱을 적시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식탁에 물고기를 놓아주시기 위해 험한 길도 스스로 걸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보아주시는 문건도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줄때 대한 문건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넉넉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넘치게 하여주시었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초출처럼 불태우신 어머니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육아원과



교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양로원은 물론 집집마다 물고기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고 인민들과 아이들은 그 물고기들을 받아안으며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온 나라의 집집마다에 넘치게 하신 그 날에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지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 속에 사는것같다고 하시며 그리고 기뻐하신 날도 새겨져있고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는 자신께서 보내주신 고기배달 몸소 오르시어 매 고기배달 때마다 1000은 잡아야 한다.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락이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가슴뜨거운 날도 새겨져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모든 헌신의 날과 날들이 있어 이 땅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의 인민사랑을 담은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질게 풍기고있다. 황금해와 사회주의바다항기!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정과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풍치수려한 대동강과 어울려 독특한 건축형식을 뽐내며 솟아있는 로동자합숙 정문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곳 일군은 말했다. 《있을수 없는 8년전 4월 새로 일떠선 우리 합숙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한

방문기 로동자궁전에서 사는 긍지와 행복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로동자들이 사는 궁전, 로동자호텔로 새로 일떠선 때로부터 여덟해가 흘렀다. 그 날엔 이곳 로동자합숙에서는 기쁨과 행복에 넘친 방직공처녀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얼마전 우리는 로동자합숙에서 복반은 생활을 누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독특한 건축형식을 뽐내며 솟아있는 로동자합숙 정문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곳 일군은 말했다. 《있을수 없는 8년전 4월 새로 일떠선 우리 합숙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한



록 하신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인가. 취재길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왔다. 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갖추어진 호텔들과 대중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문화후생시설들에서는 사회주의문명을 누려가는 방직공처녀들의 희열과 광만이 한껏 흘러넘치고있었다. 교대작업을 마친 합숙생들이 웃음꽃과 탁구경기를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 갖가지 주방도구며 집기류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로리실살창에서는 알차마를 두른 합숙생 처녀들이 로리제간을 익히느라 뽐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랑의 보급자리로 입사한 후 메일과 같이 이어지는 처녀로동자들의 즐거운 합숙생활의 하루하루였다. 우리가 만난 합숙생처녀들은 이처럼 회한한 로동자합숙에서 생활하는 남다른 자랑을 터놓았다. 한 합숙생처녀는 《어머나는 저더러 이젠 나이도 있는데 시집을 가야 하지 않는가고 독촉하곤 합니다. 시집을 가면 로동자궁전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한생 여기서 살고싶는데...》라고 울상이 되어 말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허나 시집을 가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무심하게만 들을수 없었다. 자기들이 살고있는 로동자들의 궁전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자기들의 보급자리에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합숙생 처녀들이 쉬이 떠나려 하지 않는것일까.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녀성친시, 녀성자별의 사회적조건이 만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기업들의 리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불행에 겪고 있는 녀성로동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갖은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남조선로동자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로동재해와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불쌍한 남조선의 녀성로동자들. 로동력을 강그리 팔아도 인간으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운 남조선생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같은 로동자궁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로동자호텔들에 보급자리를 펴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녀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젖어들었다. 친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려가는 방직공처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절로 울려나왔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야말로 위대한 어머니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종전자,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호텔, 이 땅의 근로대중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의 상징이라고. 본사기자 흥복식



남조선에서

수필 부모있는 《고아》

부모있는 《고아》! 너무나 모순적인 부름이 아닐수 없다. 부모를 잃고 의지가 지체할데 없는 아이를 가리켜 고아라고 하는데 부모 있는 《고아》라니, 허나 있을수 없는 이 모순적인 부름이 실지 세상에 존재하고있다. 며칠전 나는 어느 출판물에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다. 글에는 남조선의 고아원들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를모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살고있는가? 부모없는 고아들의 대명사이기도 한 슬픔과 고통을 어찌하여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당해야 하는가? 잃어버려가는 글줄에 비친 그 리유가 상상밖이어서 경악을 자아냈다. 보잘것없는 생계비로 엄청난 양육비를 감당해낼수 없어 한지로 밀어낸 아이들, 메리고 짓밟고 굶기다 못해 구긴 종이장을 버리듯 내팽개친 아이들... 부모들이 퍼를 준 친자식마저 서슴없이 내버리는 처참한 현실은 인간생지옥 남조선의 진면모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권지혜

오 요즘 막내딸의 방에서는 밤이 없어졌다. 자재에도 불이 켜져있고 이른새벽에도 한도양새이다. 앞으로 치러야 할 대학입학 시험준비를 위해서이다. 얼마전 나는 《출입금지》간판까지 큼직하게 붙여놓은 그 방에 작심먹고 들어섰다. 밤 한술 대충 넘기자마자 바람같이 제 방으로 사라져 버린 딸의 건강상태가 넘쳐되어 준비한 밤참을 건네기 위해 해서였다. 《엄마의 자적으로 막내가 그어놓은 금지선을 넘었으니 용서할수 있었지?》라고 나는 울물룩하게 치켜든 딸의 두눈에 정겨운 시선을 보내며 통으로 그의 신경을 눈착혀주었다. 《네, 내친김에 쉬어가지요 뭐.》

배움의 《고민》

를 쓰던 일, 7.15최우등상의 영예를 지니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라를 활짝 꽃피우던 나날. 박사사원을 졸업하고 30대에 박사, 부교수가 되어 교육자로서의 긍지높은 삶을 누려온 순간들... 나쁜이 아니다. 남편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재능있는 발명가, 만아들은 평양건축대학 졸업을 앞둔 미래의 설계가이다. 온 가족이 이처럼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정말이지 사회주의 내 조국의 고마운 혜택을 과연 우리 가족이 다 알고 누려온 것이던가. 은혜로운 풍속에서 누리는 배움의 권리를 오히려 옹당하게 여기며 어느 대학에 갈것인지 고민하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니 얼마전 교수준비를 하던중 자료실에서 보았던 남조선사회의 교육실태가 떠올랐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배움이 곧 빛으로 되는 비

그것은 교육을 보수적인 색채가 질게 정치화하려는 정책, 보통교육부문을 축소약화시키고 특정한 대학들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전체 교육분야를 후퇴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 《사교육》을 부추기고 《시장원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지나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의 시장화정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각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내몰아 자살자들이 늘어나게 하고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든

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배척해나서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곳에 어찌 새세대들의 희망과 꿈, 미래가 있겠는가. 허나 우리 공화국은 어떠한가.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에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학교들에서 《수업료》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무료로 공부하며 푸른 꿈을 키우고있고 재능과 희망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까지 받는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교육과 학용품이 보장되고있으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분교가 세워지고 통학버스와 통학렬차, 통학배가 운영되고있다. 나라마다 교육제도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화국의 교육제



락(樂)랑(朗)분(分)화(化)시(時)기(期)의(의) 청(淸)동(洞)야(野)급(汲)기(器)술(術)과(과) 제(製)철(鐵)제(製)강(鋼)기(器)술(術)

락랑문화시기의 청동야급기술과 제철제강기술

락랑문화시기의 유적들에서 발굴된 유물들중에는 청동기와 철기제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당시 청동 및 제철야급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인류문화발전의 단계인 청동시대와 철기시대가 우리 나라에 존재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남경회택임강사에서 유적들에서 나온 청동제품과 철기제품들의 화학조성을 분석한 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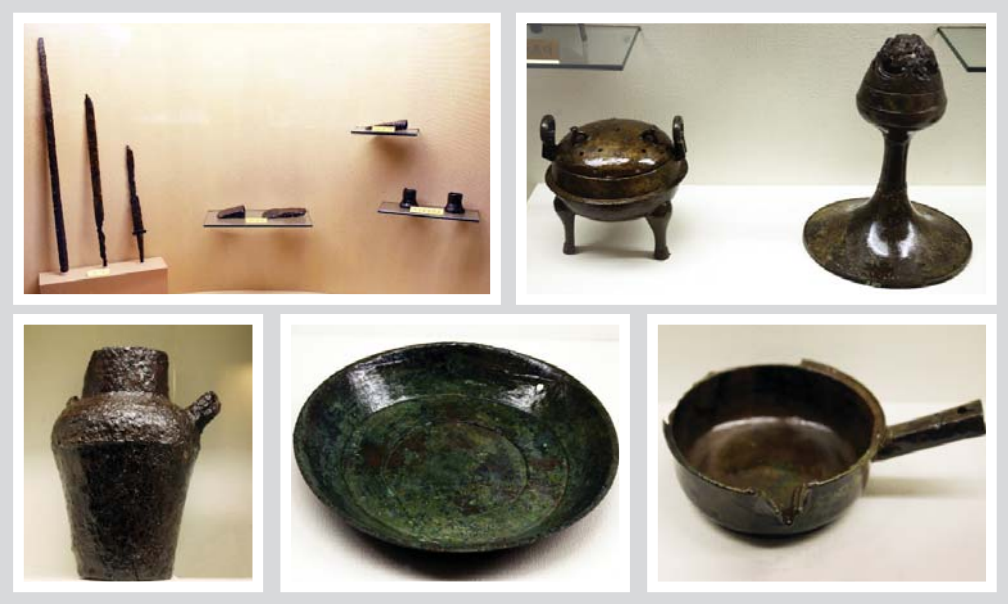
분석표들은 두가지 문제점을 잘 알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는 무덤유적들에서 나온 쇠뇌와 같은 무기류와 마구 및 수레부속품류, 그릇류를 비롯한 청동기와 철기들의 화학조성이 평양일대와 그 주변의 흥동광산, 은률광산이나 재령광산 등의 광석

들의 화학조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락랑문화시기의 금속제품들이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것이 아니라 평양일대의 광석으로 만든 제품이라는것을 말해주었다.

다른 하나는 청동기나 철기나 할것없이 금속제품들이 그 기능과 용도에 합당한 우수한 제품들이라는것이였다.



분석표는 청동무기들의 석함량이 14~15%정도, 연은 4%이상 포함되어 기계적성질과 주조, 경도에 합당한 비율임을 보여주고있었다.

철기들도 기능과 용도에 맞는 각이한 재질의 철을 썼다는것을 분석표를 통하여 알수 있었다.

이것은 락랑문화창조자들이 선철은 물론 강철도 만들어내었으며 그 철을 부단히 개선해왔다는것을 알수 있게 해주었다.

선조들이 남긴 한철한철의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이야말로 오랜 옛날부터 과학적창조와 발명으로 인류의 보물고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앓듯이 느끼었다.

장숙영

효능높은 고려약을 생산한다

- 보통강고려약공장에서 -

공화국의 보통강고려약공장에서 효능높은 고려약생산과 새 제품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의약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요구에 맞는 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공장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여러 공정의 설비들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 기적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원관단위들과 연계해 맺고 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렇게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한데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디판소화단알약, 금은화개나리열감기씨락약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전장에 나갈 때 철판대신에 종이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

종이로 만든 갑옷을 지갑, 갑옷을 만드는 종이 갑옷이라고 하였다.

15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갑옷의 전장에서 화살을 막는 갑옷을 만든데 쓰인 종이이다.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철판을 써야 하지만 철판은 무겁기때문에 대신 가벼운 면서도 강도가 철판 못지않게 하지만 철판을 써야 하지만 철판을 쓰지 않았기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았다.

지갑은 다른 나라에서 등나무를 기름을 먹여 만든 등갑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이 만든 종이로 제작한 순수 우리 것이였다.

민족의 숨겨진 종이갑옷

본사기자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4.25체육단 축구감독 한 철 학	기관차체육단 축구감독 한 원 철
------------------------------	-----------------------------

4.25체육단 여자축구팀의 한철학감독은 현대축구 발전추세와 팀의 선수구성상태를 면밀히 분석한데 맞게 전술적방안들을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지난해에 진행된 주요 국내경기들에서 팀이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철저한 대인방어와 측면돌파에 의한 문전결속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수단과 방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연구제안들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육체기술적능력을 제고하고 팀의 전술적추진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다.

하야 팀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공격과 방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팀, 압박전술활용과 빠른 속공에 의

국가비밀질문화유산

모란봉전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모란봉을 평양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모란봉과 관련된 전설들을 창조하여왔다.

모란봉에 대한 깊은 애착과 사랑이 반영되어있는 전설들에는 아름다운 모란봉을 가지고있는 궁지와 자부심, 외제침략자들의 침입으로부터 아름다운 모란봉을 지켜싸우려는 애국의 마음이 깊이있게 담겨져있다.

모란봉의 신기로운 샘물에 대한 이야기로 담고있는 전설 《홍부동》, 평양총각의 착한 마음에 감동되어 천지조화를 일으켜 청류벽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놓았다는 전설 《청류벽이 생긴 이야기》 등은 모란봉의 신비



겨울철에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바람이 불 때 더 추운감을 느끼곤 한다.

인체의 피부결면에는 항상적으로 피부온도가 36.5도 정도인데 겨울에는 주위의 환경온도가 3도 정도인 경우 피부온도는 33.5도 정도로 떨어진다.

겨울철에 바람이 불 때 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를 막자면 날씨예보를 받을 때 마다 기온과 함께 바람속도 등 대기상태에 관심을 돌리고 그에 맞게 옷차림을 하여야 하며 몸단련을 자주 하여야 한다.

우리말 삼익

《얕다》와 《얇다》는 두 개가 얕다는 점에서 비슷한데가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폭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단어 《얕다》는 《얇다》의 뜻과 같은데 그보다 더 얕은 상태를 나타내며 《얇다》의 뜻에 빛깔이 연하거나 빛이 뜨겁지 않고 약한것, 힘이 빠져서 약하다

사화 송도특식 설야적의 유래 (1)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송도의 거무팔마을에 사는 40대파부 김씨는 열댓살 난 외아들 찬봉이를 앞세우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들은 백여리 험한 길을 헤치고 제비모양의 바위가 있는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섰다.

팔안은 사방이 가파로운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여있어 피난처로서는 그저그만이었다.

일행중에 글개나 아는 늑은이가 있어 제비모양의 바위를 보고 연암이라 하더니 팔안에 연암골이란 이름을 달아주었다.

연암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썩 후날 실학자 박지원이 이 골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호를 《연암》이라 한 때 부터였다.

그것은 아직 200년후의 일이고 그때는 임진왜란으로 조선사람들이 불행을 겪던 시기였다.

인적드문 연암골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김씨가 하는 일은 딸감을 해다가 기식을 풀이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죽내며 제 혼자 씹적거리던 찬봉이 어느날 온다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김씨는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사방에 왜놈들이 개싸다니듯하였는데 이 일을 어

단고을에서 일어난 의병대가 왜놈들을 죽인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에 찬봉은 날아갈듯 기분이 좋아졌다.

무엇때문에 제 나라, 제 땅에서 죽발이따위 두렵다고 숨어다니던 말인가. 나도 얼마든지 의병이 되어 왜놈들을 죽일수 있다.

찬봉은 즉시 장단의병대를 찾아가려 길을 방향을 바꾸었다.

어떻지 않게 연암골의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망해산에서 의병대를 만날수 있었다.

《어머니! 난 의병대장님으로부터 직접 왜놈들의 실정을 알았오라는 군령을 받았소이다. 대장님은 적과 싸워 이기자면 먼저 적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아직은 어린 내가 그 책임자라고 했소이다.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일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나 송도성안에 들어가 음식점에 자리를 잡으라고 하면서 칼과 활을 주셨소이다.》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뉘, 왜놈들이 육살대는 송도에 다시 간단 말이나. 안돼! 난 삼대독자가문의 외아들이란 말이다. 네가 잘못되면... 난... 안돼.》

찬봉은 도리머리를 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었다.